

STX, 말레이시아 태양광 시장 진출

SHTP와 태양전지·모듈 생산에 발전소 건설 ... 동남아 진출 발판 마련

STX에너지가 말레이시아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다.

STX에너지는 최근 말레이시아 조호루의 세나이 국제공항에서 현지 개발기업인 SHTP(세나이하이테크파크)와 태양광 발전소 및 태양전지 모듈 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고 5월25일 발표했다.

SHTP가 세나이 공항 주변에 조성중인 460ha의 하이테크파크에 태양광 발전소와 태양전지 및 모듈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게 된다.

STX에너지 관계자는 “말레이시아와 인접한 동남아 지역의 신·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”며 “에너지 수송 및 교역, 선박 건조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MOU 체결식에는 강덕수 STX 회장과 STX에너지의 자회사이자 말레이시아 사업을 주관할 STX솔라의 윤제현 대표 외에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, 아흐마드 슈크리 타주딘 SHTP 대표가 참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5/26>